「취업진로연구」 제8권 제4호(통권 24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18. Vol. 8, No.4, pp.119~145

논문접수일 : 2018년 11월 08일
최종수정일 : 2018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0일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 현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정지애(서원대학교)* ·**강혜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소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최근 19년 동안 발표된 111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이다. ① 연도별 현황은 2006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는 미흡하였으나 2014년 12편(10.8%), 2015년 15편(13.5%)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6년 이후 연구는 68편(61.2%)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② 연구대상 현황은 성인(51.4%)과 대학생(39.6%)으로 대다수 연구가 이루어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측정도구 현황은 CVQ-K(50.3%), MCM-K(11.7%), Wrzesniewski et al.척도(6.3%), VCS-K(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연구방법은 양적연구(89.2%)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① '논문제목' 분석 결과, 소명의식, 직업소명, 대학생, 진로소명, 삶의 만족 등의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소명의식, 삶의 만족, 진로소명, 대학생, 직업소명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직업소명, 소명의식, 진로소명, 삶의 만족, 조직몰입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진로와 직업분야에서 소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와 확장이 높은 연구주제를 알 수 있었다. ② '연구대상' 분석 결과, 대학생 연구대상의 주제어로는 대학생, 진로소명, 소명의식, 삶의 만족, 진로결정수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연구대상의 주제어로는 직업소명, 소명의식, 직무만족, 교사, 직장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상별 연구주제의 차이점이 분석되어 대상별 소명의 사용명칭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③ '주제어'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는 삶의 만족, 소명의식, 삶의 의미, 진로소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는 삶의 만족, 진로소명, 소명의식, 삶의 의미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는 G1(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 G2(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 G3(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의 총 3개의 연구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진로와 직업에서 대상별로 삶과 일의 의미와 만족에 적응으로서 소명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소명, 진로소명, 직업소명, 소명의식, 진로, 직업, 네트워크 분석, 동향연구.

* 제1저자,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mail: career4ui@naver.com.
** 교신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mail: hy97kang@koreatech.ac.kr. Tel: 041-560-1412; Fax: 041-640-8670.

Ⅰ. 서 론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에 대한 진로고민은 급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에 대한 의미부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즉 진로와 직업에서 소명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대학들은 기존 Career Center를 “Center for Career and Calling”으로, 인재선발 슬로건도 “Find Jobs. Build a Better Career. Find Your Calling”으로 변화되고 있다(Galles & Lenz, 2013).

‘나는’의 주관적 진로구성에서 삶에서의 ‘일의 의미’와 ‘소명’은 중요하다(Hall & Chandler, 2005).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에서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전 생애과정으로 개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다(Super, 1990).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속한 사회구조에 의해서 끊임없는 상호영향을 받는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한다(Giddens, 1984). 개인은 진로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로를 스스로 구성해가며 적응하고 발달한다(Savickas et al., 2009). 진로구성과정에서 개인적 의미부여와 진로관련 과업들에 대한 대처인 진로적응은 개인이 특정 진로에 부여한 소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신윤정, 2013).

소명(Calling)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말한다.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만족할 뿐 아니라 여러 장벽에도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Dik & Duffy, 2009). 즉 직업의 수단적 의미보다는 본질적 의미로서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필수요소로, 소명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물질적인 보상과 명예 없이도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Seligman, 2004). 직업(job), 경력(career), 소명(calling)의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 중에서 소명은 자신이 하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일을 통해 개인 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Wrzesiewski et al, 1997). 소명은 삶과 일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개념으로, 삶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일 또는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를 일컫는다(Dobrow & Tosti-Kharas, 2011). 또한 소명은 개인 내적인 주관적 삶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여 일 자체가 충족감의 근원을 이루어 그 개인을 대표하는 진로 정체성으로 설명된다(Berg, Grant & Johnson, 2010; Duffy & Dik, 2013; Gazica & Spector, 2015). 전 세계적으로, 진로상담 및 발달연구에서 소명이 주목받게 된 것은 개인의 주체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사회 구성주의 흐름을 반영한다(이지원・이기학, 2015). 특히 한국의 경우 학벌주의, 대기업 선호, 청년실업과 불확실성으로 개인의 진로적응을 위해 일에 대한 내적가치로 소명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진로와 직업에서 소명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관점에서 소명은 심리학과 종교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았다(윤치호, 2017). 직업소명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관점(종교적, 진로발달, 삶의 의미 및 목적 추구, 긍정심리학 등)과 학문 분야(경영, 사회, 교육, 상담심리, 긍정심리, 산업 및 조직심리 등)로 매우 다양하다(권선영,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에 대한 시초가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의미로 시

작되었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분야에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Weber에 의해 확립된 직업소명은 종교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일을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즉 소명에 대한 의미는 신에 의해 부름 받는 종교적 의미를 수반하지는 않는다(Bunderson & Thompson, 2009; Steger et al. 2010). 일에 대한 소명의 중요성은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에 2014년부터 소명의식이 별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졌다(정윤경 등,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진로와 직업분야의 소명을 기독교 관점과 분리하여 그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연구진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대상, 주제,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동향에 대한 정기적 분석은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육동인, 2017). '연구에 대한 연구(research on the research)'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보다 나은 연구방향을 제언함으로써 학문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배상훈 등, 2013). Duffy와 Dik(2013)은 일과 진로에서의 소명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성숙도, 경력몰입, 일의 의미,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향후 소명에 대한 개념적 이해 개발 및 종단 데이터, 다양한 문화 집단으로 소명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진로와 직업분야에 대한 국내 동향연구를 살펴보면, 조항 등(2009)의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을 시작으로 최근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상담(손승연・이종연, 2017), 진로분야의 질적 연구(김향란 등, 2017), 프로티언 커리어(김이준・김봉환, 2017), 지방대학 진로문제(정지애・이제경, 2018) 등으로 다양하나 소명에 대한 동향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진로와 직업분야의 국내 소명연구는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주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동향연구의 현황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배제하고, 다양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주제어들의 관계, 흐름, 유사성, 응집, 확산 등의 현상을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명은 진로를 구성하는 적응 과정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에게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지속적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 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를 통한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에 대한 개인적·본질적 의미를 충족시키며 진로발달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예측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 진로와 직업 관련 가치로 소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소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연구 현황(① 기초사항, ② 연구대상, ③ 측정도구, ④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연구(① 논문제목, ② 연구대상, ③ 주제어)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2.1 소명

소명(Calling)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으로, 최근 진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성개념이다(정지애 · 강혜영, 2016).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자신을 넘은 존재로부터 경험하는 '초월적 부름',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는 '목적/의미', 동기의 주요한 원천으로 타인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니는 '친사회적 지향'의 세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소명연구를 살펴보면 소명 과정, 개념, 척도, 효과로 연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명은 선천적인 과정인가? 기독교 관점에 의하면 소명은 본래 타고난 개념이다. 하지만 Wrzesniewski와 Dutton(2001)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몇 가지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소명 있는 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이라고 하였다. 주어진 업무를 넘어 직원 개개인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발적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와 관계를 조정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소명 있는 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권인수와 김상준(2017)의 연구에서도 직급에 따라 소명의식의 차이가 나타나 소명의 사후적 형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분은 소명의 개념이 후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명은 일회성인가? Duffy과 Dik(2013)에 의하면 소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일에 대한 경험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소명의식 또한 구체화 되거나 명료해지는 전 생애 진행형 과제로 개념화되고 있다. 소명의식은 경력몰입, 일의 의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후적으로는 반대로 경력몰입, 일의 의미, 직무 만족이 소명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Duffy et al., 2014). Dobrow(2013)는 7년 동안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소명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 있으며 경력관련 선행요인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준비와 예측하지 못한 직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인 진로적응과 맥락을 같이 한다(Savickas, 1997). 이러한 부분은 사후적으로 형성된 소명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진로와 직업 교육에서 소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예측된다.

셋째, 소명의 개념은 어떠한가? Dik과 Duffy(2009)는 소명추구(search for calling)와 소명존재(presence of calling)로 분류하였다. 소명추구는 소명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의지이며, 소명존재는 현재 내가 소명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Duffy et al.(2012)은 소명의식(perceiving a calling)과 소명실행(living a calling)으로 분류하였다. 소명의식은 개인이 소명을 인식하는 수준이며, 소명실행은 소명대로 실제 살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명의 정의를 통해 소명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Having a Calling, CVQ, Calling Scale, MCM, BCS, LCS, CCS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CVQ-K(심예린 · 유성경, 2012),

MCM-K(하유진 등, 2014), KCCS(Kim et al., 2016)가 번안 및 타당화 되었고, 권선영(2014)은 한국형 직업소명척도인 VCS-K(Korean-Vocational Calling Scale)를 개발하였다. 또한 소명의 중요개념과 척도들은 질적 연구의 결과 도출을 비롯하여 전문직업성의 척도개발과 진로변인의 메타변인으로 함께 연구될 정도로 진로와 직업분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넷째, 소명의 효과는 어떠한가? Hall과 Chandler(2005)에 의하면 소명이 진로성공의 예측변인으로서 진로나 직업에서 의미로 중요하지만 가족에 의해 진로성공이 방해될 경우 대처능력 및 자원탐색과 지지방식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실행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일 수 있기에 개입이 필요하다. Treadgold(1999)는 소명으로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부적으로 관련되며 자기 개념의 명료성에 긍정적으로 관련 있었다. 임명기(2016)는 대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입사 초기 소명추구가 2년 후의 직무수행을 예측하여 소명을 실행할 때 긍정적이었다. 민지현 등(2017)은 직장인과 대학생의 소명실행이 소명의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Duffy et al.(2011)도 소명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더 헌신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적은데, 진로 몰입이 낮으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며 직무환경에 따라서 소명이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소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개인이 지각된 소명의식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2 진로 및 직업과 소명

진로는 직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어떤 시기에 특정 역할의 영향을 받아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이다(Super, 1980).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 종사하는 일이다. 진로발달이론에서는 발달 주체로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진로적응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본다(이지원 · 이기학, 2015). 또한 구성주의 진로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환경과의 단순하고 일회적인 매칭이 아닌 개인이 환경과의 통합과정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 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다(Savickas et al., 2009). 즉 생애 진로와 직업 선택의 진로발달에서 개인가치로 소명이 중요한 이유이다.

개인의 진로발달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과정에서 각각의 발달과업을 통해 수행과 성취를 반복하는 소규모 학습과정을 거친다(Super, 1990).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진로발달 과정은 목표/실천→객관적 성공→주관적 성공→정체감 변화의 반복되는 순환과정이다(Super, 1957; Hall & Chandler, 2005). 개인은 선천적 능력, 환경적 상황, 학습경험, 문제해결능력의 상호작용으로 진로에 영향을 받는다. 형성된 학습경험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일반화를 형성하게 된다(Krumboltz, 1996). Hall과 Chandler(2005)는 Super와 Krumboltz의 이론을 통합하여 진로성공모형은 소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존재할 때 달성된다고 하였다. 목적/소명의식 및 자신감→목표/실천→객관적 성공/주관적 성공→외부 인식→정체감 변화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진로와 자기정체감이 발달하며 효과를 보였다. 진로성공모형에서 소명의 중요성은 앞으로의 진로교

육 패러다임에 소명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소명 인식이 존재할 때는 자각과 강화로, 그렇지 않을 때는 후천적·지속적 소명교육으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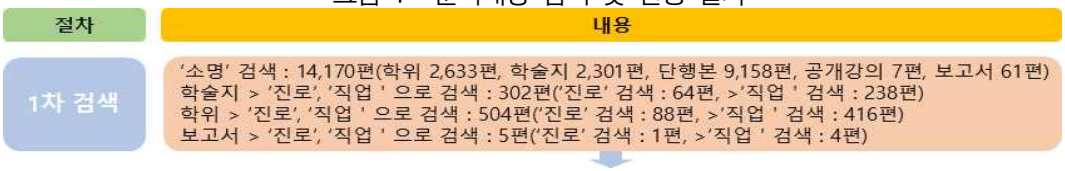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개인적·조직적·교육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으로 대학시절에 형성된 진로소명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서도 취업 후 적응을 잘한다(신윤정, 2013).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여 진로소명을 높게 인식하는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보다 넓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고취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진로상담 및 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유리 등, 2016). 이는 곧 직업의 세계로 들어서야 하는 대학생 시절에 자신이 갖게 될 일에 대해 소명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역설해준다(정우희 · 김혜원, 2017). 둘째, 조직적으로 근로자의 소명의식은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소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일과 생활을 조화하고자 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개인과 직무의 가치를 적합토록 하여, 자신이 수행 하는 직무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부여를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종식 · 안상봉, 2017). 셋째, 교육·연구적으로 직업소명의식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경력 이론들이 현재 청년층의 진로교육에 맞춰 진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종식 · 안상봉, 2017). 대학생에게도 직업의식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직업소명의식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경력 이론들이 현재 청년층의 진로교육에 맞춰 진로 연구로 확장되어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구직활동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진로교육이 사회진출 후, 경력관리 방법론까지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진로선택 및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조형래 · 박용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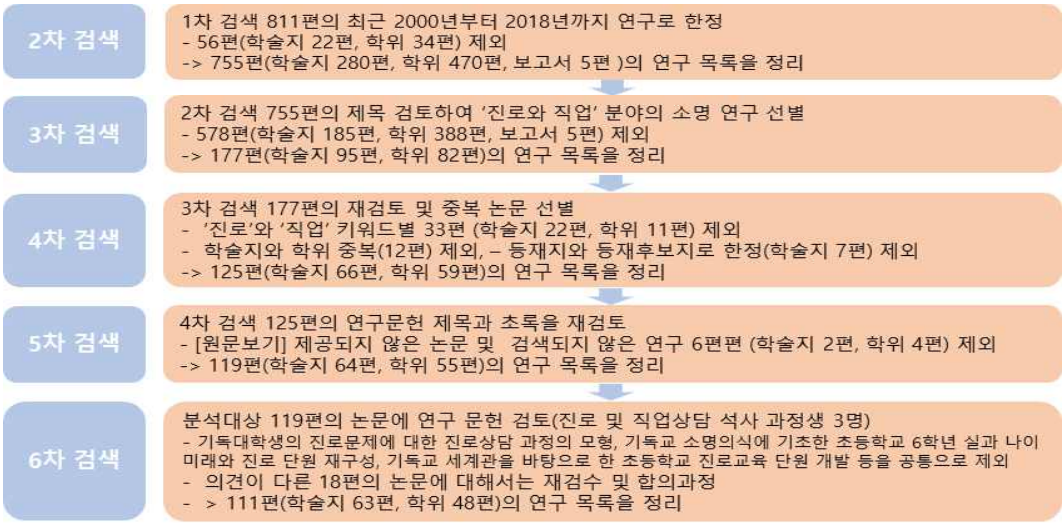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검색 및 선정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 동향연구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소명', '진로', '직업'의 용어로 논문제목과 초록 수준에서 진로와 직업분야 소명과 관련된 연구로 검색하였다(2018년 5월 16일 기준). 구체적인 검색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분석대상 검색 및 선정 절차





3.2 분석절차 및 방법

3.2.1 분석 영역 선정 절차

본 연구의 분석영역은 자료 분석을 위한 분석준거를 수립하기 위하여 '진로와 직업분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조항 등(2009)은 진로 및 직업상담 분야 논문들의 주제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발행현황, 연구유형, 연구의 장, 자료수집기간, 연구대상의 5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김이준과 김봉환(2017)은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동향분석을 위하여 기초사항,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으로써 4가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김향란 등(2017)은 진로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을 위해 기초사항,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자료분석 방법의 5가지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정지애와 이제경(2018)은 기초현황, 진로문제, 지역, 사회인지진로이론 주요변인의 4가지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의 영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한편 최근 동향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지 등(2017)은 직업교육연구 학회지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육동인(2017)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토픽분석을 하였고 신세인 등(2017)도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주제어 빈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영은과 이건남(2018)은 초등 진로교육에 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동향연구의 흐름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제어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동향 논문들이 사용한 분석 준거에서 각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항목들을 추출,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수정·보완하여 분석 영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표 1>.

<표 1> 분석영역 분류범주

분류범주		세부사항
① 현황분석	연도	출판연도, 학술지, 학위논문(석사/박사), 자료수집기간
	연구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직업인), 기타(혼합)
	측정도구	Wrzesniewski et al.척도, Having a Calling, CVQ, Calling Scale, MCM BCS, LCS, 박종우, CVQ-K, MCM-K, VCS-K, KCCS, 기타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혼합 연구, 기타
② 네트워크 분석		제목/대상/주제어의 빈도수 및 네트워크 중심성(응집, 매개)과 구조(에고, 커뮤니티)

3.2.2 현황 분석 방법

내용분석은 분석준거 범주에 따라 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로 분류하여 확인함으로써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현황에는 연구의 흐름과 종단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학술지와 학위논문 구분과 조항 등(2009)의 자료 수집 기간을 추가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진로발달단계로 직업 이전·이후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항 등(2009)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의 분류와 이지은과 이제경(2015)의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를 혼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Creswell et al.(2003)의 분류유목을 사용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명의 측정도구를 분류하였고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분석은 분석 대상별로 한개 이상의 변인이 들어간 경우, 각 변인에 빈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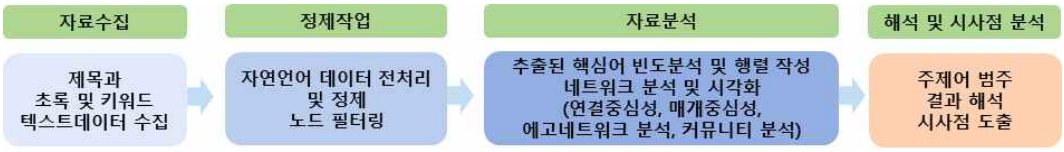
<표 2> 소명 측정도구

No	저자명	척도명	하위요인 및 문항
①	Wrzesniewski et, al.(1997)	-	의미부여 정도, 일에 대한 열정, 자기잠재성 실현, 일의 지속의지
②	Dobrow(2006)	Having a Calling	열정, 정체성, 시급성, 몰두, 지속성, 의미 인식, 특정영영에서의 자존감
③	Dik et al.(2008)	CVQ	존재-초월적 부름, 추구-초월적 부름, 존재-목적이 있는 일, 추구-목적이 있는 일, 존재-친사회성, 추구-친사회성
④	Dobrow, Tosti -Kharas(2011)	Calling Scale	다른 사람에게 음악가(예술가, 기업인, 전문경영인)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처음이다
⑤	Hagmaier, Abel (2012)	MCM	동일시와 사회-환경-적합, 초월성으로 이끄는 힘, 감각과 의미, 가치추동 행동
⑥	Bryan et al.(2012)	BCS	소명 여부를 묻는 단일 영역
⑦	Duffy et al.(2012)	LCS	소명수행 의식 척도
⑧	박종우(1994)	-	Anderson(1982)의 사회복지분야 전문직업적 정체성, 5개 문항
⑨	심예린 등(2012)	CVQ-K	초월적 부름, 목적이 있는 일, 친 사회성
⑩	하유진 등(2014)	MCM-K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초월적 인도력
⑪	권선영(2014)	VCS-K	일 가치감, 일 목적지향, 천직의식
⑫	Kim et al.(2016)	KCCS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 의미, 적극적 참여

3.2.3 네트워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진로 및 직업분야 소명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추출된 11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어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문 제목을 활용하였다. 이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경우 제시된 양이 다르고, 주제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누락되는 논문이 있어 전체논문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2차적으로 분석논문의 주제어(키워드)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어가 없는 11개의 논문을 제외하였고, 영어주제어의 경우 한글로 변환하여 총 100개(학술지 63편, 학위 37편)의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제어들의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및 중심성 분석을 위해 Net Miner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네트워크 분석 연구 절차



첫째, 분석 대상 논문의 제목을 수집하여 자연언어로 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정제작업을 거치고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주제어 삭제(ex. 연구, 분석, 결과 등), 노드 통일(ex.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진로 결정, 진로결정성을 통일), 링크과대추정 방지(ex.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통하여 최종 분석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주제어를 노드로 표현하고 주제어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를 작성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은 전체 연구물에서 4번 이상 사용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 연구 동향과 핵심주제를 예측하였다. 셋째, 전체 네트워크에서 개별 노드들의 중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링크에 가중치를 부여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결속 또는 매개시켜 주는 관계를 보기 위하여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별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명연구의 보다 명확한 핵심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논문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어'로 키워드의 중심성과 구조를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다.

3.2.4 평정 및 검수

연구의 평정은 연구자가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 확정된 분류기준 이외에 연구대상 명수, 성별, 학과 및 직업 등 기타 인구학적 수치와 주요 통계적 분석 기법과 사용된 프로그램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의 타당도를 높였다. 2차로 진로 및 직업 분야에서 다년간의 동향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이 최종 검수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현황 분석 결과

4.1.1 연도별 연구현황

연도별 연구현황은 <표 3>과 같이, 2006년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나 2013년까지 그 수는 매우 적었다. 이후 2014년 12편(10.8%), 2015년 15편(13.5%)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 연구는 68편(61.2%)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학술지(56.7%)와 학위논문(43.2%)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대다수 한 시점(94.5%)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 연구로 나타났다.

<표 3> 기초사항 연구현황

구분	~'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학술지	-	2			1			3	2	8	11	16	16	4	63(56.7)
석사논문	-		1	1		1	3	1		3	3	7	12	3	35(31.5)
박사논문	-							1		1	1	3	6	1	13(11.7)
한 시점	-	-	1	1		1	3	5	2	12	15	25	32	8	105(94.5)
두 시점	-											1	1		2(0.2)
기타		2			1								1		4(0.3)
계	-	2	1	1	1	1	3	5	2	12	15	26	34	8	111
%	-	1.8	.9	.9	.9	.9	2.7	4.5	1.8	10.8	13.5	23.4	30.6	7.2	100.0
	-	5.4%						33.3%				61.2%			

4.1.2 연구대상별 연구현황

연구대상별 연구현황은 <표 4>와 같이 성인(51.4%), 대학생(39.6%) 대상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2.7%), 중학생(1.8%) 연구는 미흡하였고, 성장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합 연구도 2편(1.8%)이 연구되었다.

<표 4> 연구대상별 연구현황

대상		~'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성장기	초	-														0(-)
탐색기	중								1							2(1.8)
	고										1	1		1		3(2.7)
	대						1	2	2	1	2	8	14	12	2	44(39.6)
확립기	성인	-		1	1			1	2	1	9	6	11	19	6	57(51.4)
혼합													1	1		2(1.8)
기타			2			1								1		4(3.6)

4.1.3 측정도구별 연구현황

측정도구별 연구현황은 <표 5>과 같이, CVQ-K(50.3%), 기타(13.1%), MCM-K(11.7%), Wrzesniewski et al.척도(6.3%), VCS-K(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척도 미사용 연구 4편을 포함하여, '의학 전문직업성과 소명 연관'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척도를 사용한 연구도 2편 있었다. 연구자 본인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한 경우와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또한 CVQ-K를 대상에 맞게 수정한 연구와 VCS-K를 재구성한 2편의 연구도 포함되었다. 최근 Kim et al.(2016)이 타당화한 한국판진로소명척도-대학생용(KCCS)도 2편 연구되었다.

<표 5> 측정도구별 연구현황

No	~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①										1	4	2			7(6.3)
②										1					1(0.9)
③															0(-)
④										1					1(0.9)
⑤												.67	.83		1.5(1.3)
⑥										1.5	1.5	.33	.33		3.67(3.3)
⑦										.5	.5	.33	1.67		3(2.7)
⑧			1	1				1							3(2.7)
⑨						1	2	2	2	3	9	19	11.83	6	55.83(50.3)
⑩												1.67	11.33		13(11.7)
⑪										1		1	2.5	1	5.5(5.0)
⑫												1	1		2(1.8)
⑬		2			1		1	2		3			4.5	1	14.5(13.1)

※ ①Wrzesniewski et al.척도 ②Having a Calling ③CVQ ④Calling Scale ⑤MCM ⑥BCS ⑦LCS ⑧전문 직업적 정체성 ⑨CVQ-K ⑩MCM-K ⑪VCS-K ⑫KCCS ⑬기타

측정도구 현황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CVQ-K, MCM-K, Wrzesniewski et al.척도, VCS-K를 분석논문에 연구대상별로 사용된 현황을 각각 1로 빈도분석 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측정도구별 연구대상 사용현황



측정도구	고등	대학생	성인	혼합	합계
CVQ-K	2	34	20	2	58
MCM-K		4	11		15
Wrzesniewski			7		7
VCS-K		1	4		5
합계	2	39	42	2	85

4.1.4 연구방법별 연구현황

연구방법별 연구현황은 <표 6>과 같이, 양적연구 89.2%로 수량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내러티브연구, 심층연구, 사례연구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으로 혼합연구로 3편(2.7%)이 이루어졌다.

<표 6> 연구방법별 연구 현황

방법	~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양적	-		1	1		1	3	4	2	11	15	26	28	7	99(89.2)
질적	-												2	1	3(2.7)
혼합													3		3(2.7)
기타		2			1			1		1			1		6(5.4)
계	-	2	1	1	1	1	3	5	2	12	15	26	34	8	111

4.2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1 '논문 제목'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중심성 및 구조

111편의 '논문 제목'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총 241종, 587개(정제 전 총 6,224종, 17,911개)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최소 1회부터 최대 37회까지 사용되었다. 도출된 키워드의 중요도로 소명 연구의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자 4회 이상 사용된 키워드로 34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장 높은 키워드로는 소명의식(37회)이 나타났으며, 직업소명(29회), 대학생(26회), 진로소명(23회), 삶의 만족(19회)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도출된 키워드는 명칭(소명의식, 직업소명, 진로소명 등), 연구대상(대학생, 직업인), 인지(만족, 의미, 직업가치 등), 진로(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등), 직업(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직무성과, 직무열의 등) 관련 변인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었다.

<표 7> '논문제목' 소명연구의 키워드 출현 빈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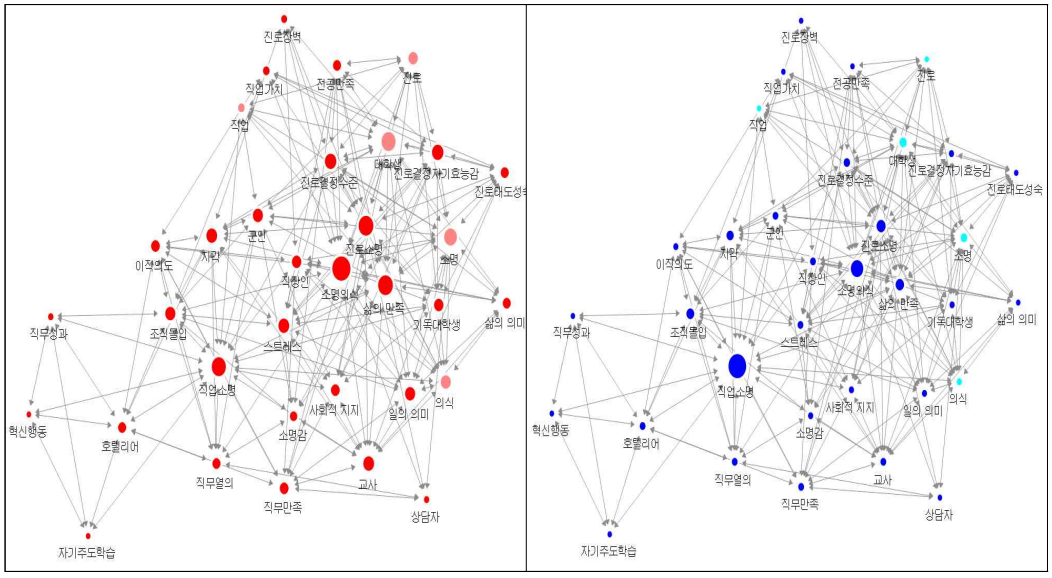
N	fre.	키워드	N	fre.	키워드	N	fre.	키워드	N	fre.	키워드
1	37	소명의식	10	9	교사	19	5	진로장벽	28	5	의식
2	28	직업소명	11	8	호텔리어	20	5	직무열의	29	4	진로
3	26	대학생	12	8	직장인	21	5	지각	30	4	혁신행동
4	23	진로소명	13	7	진로태도성숙	22	5	전공만족	31	4	직업가치
5	19	삶의 만족	14	7	조직몰입	23	5	일의 의미	32	4	직무성과
6	15	소명	15	7	이직의도	24	5	소명감	33	4	자기주도학습
7	12	직무만족	16	7	기독대학생	25	5	상담자	34	4	사회적 지지
8	11	진로결정수준	17	6	스트레스	26	5	삶의 의미			
9	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8	5	직업	27	5	군인			

‘논문제목’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결과는 <표 8>과 [그림 4]와 같다. 연결중심성은 키워드(노드)와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된 정도를 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되는 빈도가 높은 연구이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소명의식(.697)’, ‘삶의 만족, 진로소명(.576),’ ‘대학생, 직업소명(.545)’, ‘소명(.485)’,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424)’ 순으로 연구되었다. 특이점으로는 스트레스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은 다양한 주제로 확장이 가능한 연구주제로 ‘직업소명(.161)’, ‘소명의식(.096)’, ‘진로소명(.056)’, ‘삶의 만족(.051)’, ‘조직몰입(.045)’, ‘대학생(.037)’, ‘지각(.032)’, ‘소명(.028)’, ‘진로결정수준(.027)’, ‘호텔리어(.023) 순으로 나타나 직업소명이 가장 확장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진로와 직업분야의 소명용어를 중심으로 연구대상과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논문제목’ 소명연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상위 10위

N	키워드	연결중심성	N	키워드	매개중심성
1	소명의식	.697	1	직업소명	.161
2	삶의 만족	.576	2	소명의식	.096
	진로소명	.576	3	진로소명	.056
4	대학생	.545	4	삶의 만족	.051
	직업소명	.545	5	조직몰입	.045
5	소명	.485	6	대학생	.037
7	진로결정수준	.424	7	지각	.0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24	8	소명	.028
10	지각	.394	9	진로결정수준	.027
	스트레스	.394	10	호텔리어	.023

<그림 4> ‘논문제목’ 소명연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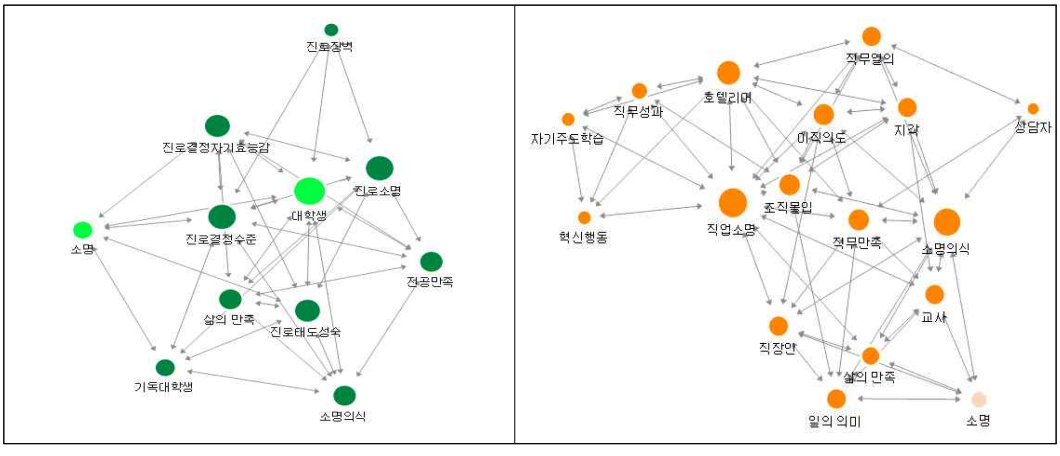
4.2.2 '연구대상'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

연구대상 중 빈도가 높게 나타난 대학생(44편)과 성인(57편)의 논문 제목에 대한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는 <표 9>, <그림 5>와 같다. 대학생은 총 98종, 226개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성인은 총 141종, 29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도출된 주제어의 중요도로 소명 연구의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자 4회 이상 사용된 주제어로 대학생은 11개, 성인은 17개를 추출하여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학생 연구대상의 가장 높은 주제어로는 대학생, 진로소명, 소명의식, 삶의 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등이 도출되었다. 성인대상 소명연구 키워드는 직업소명, 소명의식, 직무만족, 교사, 직장인, 호텔리어, 조직몰입, 이직의도, 삶의 만족, 소명, 직무열의 등이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소명의식, 직업소명, 진로소명, 소명)은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었고, 성인은 진로소명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표 9> '연구대상' 소명연구의 키워드 출현 빈도

대학생			성인					
N	fre.	키워드	N	fre.	키워드	N	fre.	키워드
1	25	대학생	1	24	직업소명	12	4	혁신행동
2	19	진로소명	2	22	소명의식		4	직무성과
3	12	소명의식	3	12	직무만족		4	지각
	12	삶의 만족	4	9	교사		4	자기주도학습
5	11	진로결정수준	5	8	직장인		4	일의 의미
6	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	호텔리어		4	상담자
7	7	진로태도성숙	7	7	조직몰입			
8	6	소명		7	이직의도			
	6	기독대학생		7	삶의 만족			
10	5	전공만족	10	6	소명			
11	4	진로장벽	11	5	직무열의			

<그림 5> '연구대상' 소명연구의 에고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



4.2.3 '주제어'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중심성 및 구조

100편의 '주제어'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이 총 16종, 39개(정제 전 총 277종, 459개)의 주제어로 최소 1회부터 최대 26회까지 사용되었다. 도출된 주제어의 중요도로 소명 연구의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자 4회 이상 사용된 주제어로 16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장 높은 주제어로는 소명의식(26회)이 나타났고, 뒤를 진로소명(22회), 삶의 만족(18회), 소명(17회), 직업소명(12회)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주제어' 소명연구의 키워드 출현 빈도

N	fre.	주제어	N	fre.	주제어	N	fre.	주제어	N	fre.	주제어
1	26	소명의식	5	12	직업소명	9	5	조직몰입	13	4	진로결정수준
2	22	진로소명	6	7	삶의 의미	10	5	이직의도	14	4	진로장벽
3	18	삶의 만족	7	5	일의 의미	11	5	자기효능감	15	4	대학생
4	17	소명	8	5	직무만족	12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6	4	매개효과

4회 이상 사용된 핵심 주제어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11>과 같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는 삶의 만족(.400), 소명의식과 삶의 의미(.333), 진로소명(.267) 순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삶의 만족(.552), 진로소명(.348), 소명의식(.260), 삶의 의미(.197) 순으로 확장이 높은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표 11> '주제어' 소명연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상위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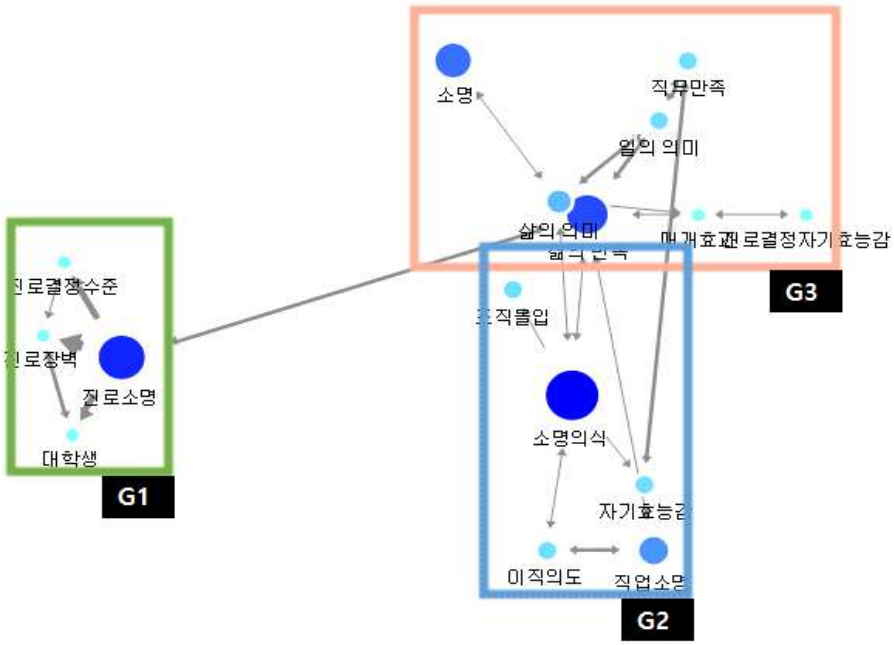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N	주제어		N	주제어		N	주제어		N	주제어	
1	삶의 만족	.400	5	일의 의미	.200	1	삶의 만족	.552	9	직무만족	.010
2	소명의식	.333	10	이직의도	.133	2	진로소명	.348	10	이직의도	.006
3	삶의 의미	.333		대학생	.133	3	소명의식	.260			
4	진로소명	.267		진로결정수준	.133	4	삶의 의미	.197			
5	직업소명	.200		직무만족	.133	5	매개효과	.133			
	매개효과	.200				6	일의 의미	.086			
	자기효능감	.200				7	직업소명	.073			
	진로장벽	.200				8	자기효능감	.044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소명연구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과 <그림 6>과 같다. 커뮤니티 분석은 응집그룹 내 노드 간 링크 빈도는 높고, 다른 집단 그룹 내 응집 밀도는 낮아지도록 군집을 구분하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키워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손동원, 2002). 분석결과, 커뮤니티의 Modularity값은 .424이며 3개의 커뮤니티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키워드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G1(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 G2(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 G3(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으로 명명하였다.

<표 12> '주제어' 소명연구의 커뮤니티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

N	키워드	fre.	특징	N	키워드	fre.	특징
G1 (4)	진로소명	22	**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	G3 (7)	삶의 만족	18	**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
	대학생	4			삶의 의미	7	
	진로장벽	4			직무 만족	5	
	진로결정수준	4			일의 의미	5	
G2 (5)	소명의식	26	**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		매개효과	4	
	조직몰입	13			소명	4	
	직업소명	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	
	이직의도	12					
	자기효능감	5					

<그림 6> 커뮤니티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



G1(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 G1은 4개의 핵심어로 진로소명, 대학생,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의 핵심어로 이루어져 '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주제어들은 노드 간 링크 빈도가 높아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다른 그룹과 응집밀도는 낮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G1의 위치는 전체 커뮤니티의 왼쪽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진로와 직업과 대학생과 성인으로 주제와 대상이 구분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진로소명은 전체 2번째로 높은 빈도의 주제어로 링크 빈도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대학생,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의 모든 핵심어와 상호 영향을 나타냈고, G(3)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장벽은 서로 영향을 미쳤고, 진로장벽은 대학생과도 상호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은 진로소명에서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을 모두 매개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G2(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 G2는 소명의식, 조직몰입, 직업소명, 이직의도, 자기효능감의 핵심어로 이루어져 직업인의 직업적응의 특성을 나타내 '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으로 명명하였다. G2의 위치는 전체 커뮤니티의 오른쪽 측면 하부로, G1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G3의 변인들과 연결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G2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소명의식과 직업소명을 포함하고 있어 소명의식은 G3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과 연결되었고, 직업소명은 삶의 만족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효능감도 직무만족과 연결되는 특성을 나타내 G2와 G3 커뮤니티 간 직무만족과 직업소명의 관계를 매개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각각의 주제어들이 커뮤니티 내 노드 간 높은 링크 빈도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소명의식은 이직의도와 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직업소명은 자기효능감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과 이직의도는 직업소명과 소명의식 각각을 매개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G3(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 G3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직무 만족, 일의 의미, 매개효과, 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핵심어로 이루어져 삶·일에 만족과 의미의 특성을 나타내 '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으로 명명하였다. G3의 위치는 전체 커뮤니티 모양에서 오른쪽 측면 상부로 G2와 연결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삶의 만족은 일의 의미, 소명, 매개효과와 상호 영향관계로 나타났고, G1의 진로소명, G2의 소명의식과 직업소명과 연결되는 특성을 나타내 대학생과 직업인의 진로소명과 직업소명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의미는 소명, 일의 의미, 매개효과와 상호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는 직무만족과 영향관계로 나타났고, 매개효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삶의 만족과 의미에 일의 의미와 매개효과가 직무만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소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최근 19년 동안 발표된 111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도,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의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현황으로 연도별 연구는 2005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6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그 수는 매우 소수였다. 이후 2014년 12편(10.8%), 2015년 15편(13.5%)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2016년 이후 연구는 68편(61.2%)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학술지(56.7%)와 학위논문(43.2%)으로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대다수 한 시점(89.2%)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두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예린・유성경(2012)과 하유진 등(2014)의 척도 번안·타당화 이후 연구가 대폭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져 학술·현장적 측면에서 소명이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종단연구는 프로그램 성과(민숙덕, 2017)와 신입사원의 소명의식과 추구 변화(임명기, 2016)에 불과하였다. 박사연구로 혼합연구(진홍섭, 2017), 예비/본연구(박은경, 2017; 심예린・유성경, 2012), 교육종단연구(차정주, 2014)도 존재하였으나 소명을 종단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니었다. 소명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자기이해 및 일에 대한 경험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소명의식 또한 구체화·명료화되는 전 생애 과제이다(Duffy & Dik, 2013). Dik과 Duffy(2009)는 소명추구와 소명존재로 개념화하였고, Duffy 등(2012)은 소명의식과 소명실행으로 개념화 하였다. 즉 소명은 개인의 전 생애 진로정체성으로 개인의 지각과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정체성의 구성과정에서 소명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진로 및 직업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에 향후 종단연구로 이를 면밀히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별 연구현황은 확립기인 성인(51.4%), 대학생(39.6%) 대상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합 연구(민지현 등, 2017; 정지애・강혜영, 2016)도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고등학생(2.7%), 중학생(1.8%) 연구는 미흡하였고, 성장기인 초등학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의 입직 전·후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결과이나, 향후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명은 삶과 일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개념으로 직업가치로 일컬어진다. 일에 대한 소명의 중요성은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에 소명의식이 별도문항으로 구성되어(정윤경 등, 2014), 직업가치로서 소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업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기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진로개발역량과 직업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서유정 등, 2016).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도 개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진로인식을 시작으로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생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고등학생은 진로목표 설정, 대학생은 직업윤리와 가치관 정립으로 직업가치의 중요성은 학령기 전 과정에서 중요하다(교육부, 2012).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 세부정책에서도 초·중등 진로교육 강화에 진로개발역량 및 직업가치관 교육을 제시하였다. 매칭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어렵기에 진로개발의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바른 직업가치관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서유정 등, 2016). 즉 직업가치는 학령기 전부터 형성되어 대학 시기에 완성되기에 소명의 사후·형성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소명교육이 진로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측정도구별 연구현황은 CVQ-K(50.3%)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MCM-K(11.7%), Wrzesniewski et al.척도(6.3%), VCS-K(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Kim et al.(2016)이 타당화한 한국판 진로소명척도-대학생용(KCCS)도 2편 연구되었다. 사용 척도는 매우 다양하였고, 특히 기타(13.1%)로 질문지와 전문성척도, 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한 연구, CVQ-K를 대상에 맞게 수정한 연구, VCS-K를 재구성한 2편의 연구도 포함되었다. 높은 빈도를 보인 측정도구에 대해 연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CVQ-K는 대학생 34편과 성인 20편, MCM-K는

대학생 4편과 성인 11편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의 명확한 개념화를 위해 측정도구의 연구대상 적용에 면밀한 점검이 제기된다. Duffy와 Dik(2013)은 소명의 개념적 이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높은 빈도를 보인 심예린・유성경(2012)의 CVQ-K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고, 하유진 등(2014)의 MCM-K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다. 권선영(2014)의 VCS-K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각 측정도구별로 적용 대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게다가 CVQ-K는 번안 과정에서 소명존재와 소명추구의 요인별 구별이 되지 않아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소명존재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개발대상과 측정변인의 차이로 이봉주(2017)는 고등학생의 소명의식에 CVQ-K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진홍섭(2017)은 직장인 대상에 대한 측정변인의 상이로 VCS-K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렇듯 소명척도는 대상과 측정변인의 차이로 원척도만의 재구성이 아닌 다른 척도와 함께 재구성하여 사용한 연구도 15편에 이르렀다. 하지만 측정도구 연구대상 사용을 보면 CVQ-K는 성인 대상으로도 연구가 20편이 이루어졌고, MCM-K도 대학생으로 4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 소명의 개념적 이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국내 소명 개념을 반영한 각 대상별 명확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연구방법별 연구현황은 양적연구 89.2%로 수량적 자료로 통계분석을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내러티브, 심층, 사례연구를 활용한 질적연구도 이루어졌으나 매우 미흡하였고, 박사학위논문으로 혼합연구 3편(2.7%)이 이루어졌다. 진로연구에서 소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개인의 주체적 가치가 강조되는 구성주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이지원・이기학, 2015). 진로구성과정에서 개인적 의미부여와 진로관련 과업에 대한 대처인 진로적응은 개인이 특정 진로에 부여한 소명과 관련 있다(신윤정, 2013). 이러한 점은 개인이 지각과 행동에 따라 소명추구/소명존재와 소명의식/소명실행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구조에 의해서 끊임없는 상호영향을 받으며 구성된다(Giddens, 1984). 그렇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대상별 특수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소명연구가 질적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논문제목, 연구대상, 주제어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제목'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편의 논문에서 4회 이상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소명의식(37회), 직업소명(29회), 대학생(26회), 진로소명(23회), 삶의 만족(19회) 등의 34개의 키워드로 명칭/연구대상/인지/진로/직업 관련 변인의 5개 분야로 재구조화할 수 있었다.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은 소명의식,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 소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소명, 대학생, 직업소명, 소명,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지각, 스트레스로 순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이 높아진(정윤경 등, 2014)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소명이 개인 내적인 주관적 삶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여 일 자체가 충족감의 근원을 이루어 그 개인을 대표하는 진로 정체성으로 설명된다(Berg, Grant & Johnson, 2010). 이러한 점이 소명의 긍정적 효과로 진로와 직업 변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긍정변인과 스트레스의 부정변인과 함께 연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중심성은 직업소명, 소명의식,

진로소명이 높게 나타나 소명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재차 제기된다. 뒤이어 삶의 만족, 조직몰입, 대학생, 지각, 소명, 진로결정수준, 호텔리어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직업소명이 다양한 주제와 확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소명의 개념이 최근 진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성개념으로(정지애 · 강혜영, 2016), 종교적 관점이 아닌 진로와 직업분야에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44편)과 성인(57편)을 대상으로 4회 이상 사용된 핵심 주제어는 각 11개와 17개가 도출되었다.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학생 대상의 높은 주제어는 대학생, 진로소명, 소명의식, 삶의 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등이 도출되었다. 성인대상은 직업소명, 소명의식, 직무만족, 교사, 호텔리어, 직장인, 조직몰입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별 연구주제 차이를 나타냈고, 대학생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나, 성인은 진로소명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국내 직업소명 실증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척도 개발 당시의 조사대상과 연구대상 차이에 따른 타당화 없이 그대로 번안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진홍섭, 2017). 이러한 점이 소명에 대한 다양한 명칭 사용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더 치부되어 소명의 중요성이 저평가되는 이유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은 진로소명으로, 성인은 직업소명의 명명이 필요한 바이다.

셋째, '주제어'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0편의 '주제어'에서 4회 이상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소명의식, 진로소명, 삶의 만족, 소명, 직업소명, 삶의 의미, 일의 의미 등 16개로 도출되었다.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은 삶의 만족, 소명의식, 삶의 의미, 진로소명 순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주제로 나타났고, 매개중심성은 삶의 만족, 진로소명, 소명의식, 삶의 의미 순으로 확장이 높은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선 '논문제목' 중심성 분석결과처럼 소명이 삶의 만족과 의미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 연구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Modularity값은 .424이며, 3개의 커뮤니티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키워드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G1(대학생의 진로적응과 진로소명), G2(직업인의 직업적응과 직업소명), G3(삶·일에 의미·만족과 소명)로 구성되었다. G1은 진로소명, 대학생,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의 4개의 핵심어, G2는 소명의식, 조직몰입, 직업소명, 이직의도, 자기효능감의 5개의 핵심어, G3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직무만족, 일의 의미, 매개효과, 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7개의 핵심어로 이루어졌다. 각 그룹은 그룹 내 노드 간 링크 빈도가 높아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다른 그룹과 응집밀도는 낮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커뮤니티의 전체 위치는 G1이 왼쪽 측면, G2는 오른쪽 측면 하부, G3는 오른쪽 측면 상부에 위치하였고, G3의 삶의 만족은 G1, G2와 연결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지지하며 소명 연구의 큰 주제로 대학생-진로적응-진로소명, 직업인-직업적응-직업소명, 삶과 일-만족과 의미-소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즉 진로와 직업에서 대상별로 삶과 일의 의미와 만족에 적응으로서 소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 소명 국내 연구동향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진로와 직업분야에서 소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관

점으로 치부되어 중요성이 재평가된 바, 이를 기독교 관점과 분리하여 진로와 직업분야의 소명 연구 성과에 대해 현황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진로발달단계로 살펴봄으로써 대다수 연구가 대학생과 성인으로 이루어져 성장기와 탐색기의 초·중·고등학생 연구의 부재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 이를 학교 직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과 함께 살펴 진로교육에 가치의 중요성으로 소명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직업가치는 학령기 전부터 형성되기에 소명의 사후·형성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소명교육이 진로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 이들 대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대상별 소명 특성을 밝히는 연구로 실제적인 진로교육 개입에 쓰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도별 연구흐름 뿐 아니라 연도별 연구대상과 방법을 면밀히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소명을 개인의 전 생애 진로정체성으로 개인의 지각과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진로정체성 구성과정에서 소명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진로 및 직업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이 지각과 행동에 따라 소명추구/소명존재와 소명의식/소명실행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각 대상별 특수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소명연구가 종단 및 질적 연구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적 관점의 재정립과 더불어 소명의 개념적 이해와 중요성을 위해 측정도구 사용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소명척도는 개발대상과 측정변인의 차이로 무분별한 사용과 다양한 척도들이 재구성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국내 소명 개념에 입각한 대상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논문제목, 연구대상, 주제어로 다각도로 소명동향을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과 가치관을 배제하나 다소 기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알고리즘에서 도출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틀을 달리할수록 다른 해석이 존재하여, 이를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섯째,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를 통하여 진로와 직업분야의 소명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어를 밝힌데 있다. 논문제목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은 소명의식이 높았으나 매개중심성은 직업소명이 높게 나타나 진로와 직업에서 소명의 중요성을 나타냈고, 주제어 중심성 분석결과는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 주요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변인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소명성공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일곱째, 연구대상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 대상은 진로소명의 명명과 성인 대상은 직업소명의 명명이 필요함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소명의 중요성에도 다양한 명칭 사용이 기독교 관점과 더불어 소명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는 이유일 수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대상별 명확한 명칭 사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커뮤니티 분석을 통하여 소명연구의 큰 주제로 대학생-진로적응-진로소명, 직업인-직업적응-직업소명, 삶과 일-의미와 만족-소명으로 구분됨을 밝혔다. 즉 진로와 직업에서 삶과 일의 의미와 만족에 적응으로서 소명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이후 연구가 전체 61.2%를 이루어 동향연구의 장점에 한계점을 갖는다. 그렇기에 향후 축적된 연구를 활용하여 연도별 네트워크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와 직업분야의 소명 동향연구 특성을 밝히기 위해 면밀한 선정절차와 석사과정 3인의 선정검수와 함께 논문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검색키워드를 '소명', '진로', '직업'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기에 누락된 연구들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어로 재선정 연구가 필요한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명 동향에 대해 현황과 네트워크 분석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결과를 밝히는 부분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향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 소명의 중요성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명의 중요성과 개념 및 성과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고종식 · 안상봉(2017), **"**소명의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80-294.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서울.

권선영(2014), **한국형 직업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권인수 · 김상준(2017), "소명의 사후적 형성", **연세경영연구**, 54(1), 83-123.

김영은 · 이건남(2017), "초등 진로교육 연구동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실과교육연구**, 23(4), 165-183.

김유리 · 서문교 · 권인수(2016), "소명의식의 선행요인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4(4), 75-98.

김은지 · 황영아 · 송영수(2017), "직업교육연구 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직업교육연구**, 36(6), 1-27.

김이준 · 김봉환(2017), "프로티언 커리어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인문사회 21**, 8(6), 143-158.

김향란 · 유승래 · 손은령(2017), "진로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73-191.

민순덕(2017), **기독교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기독 대학생의 소명의식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민지현 · 강에스더 · 이혜주(2017), "소명의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소명실행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4), 491-516.

박은경(2017), **교사가 인식하는 소명의식 유형 : Q방법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배상훈 · 장창성 · 이태희 · 조성범(2014), "마이스터고 연구의 동향과 과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및 내용분석", **직업교육연구**, 33(3): 83-104.

서유정 · 김수원 · 박천수 · 정윤경(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 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승연 · 이종연(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149-170.

신윤정(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신세인 · 하민수 · 이준기(2017),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교육영역에서의 진로교육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93-312.

심예린 · 유성경(2012), “한국판 소명 척도(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47-872.

이지은 · 이제경(2015), “진로상담: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6(5), 171-192.

이지원 · 이기학(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53-976.

임명기(2016). **신입사원의 소명의식 변화가 잡 크래프팅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델링을 이용한 종단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육동인(2017),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직업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3), 586-599.

윤치호(2017), **의료기관 임상종사자(의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명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우희 · 김혜원(2017), “진로소명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45-472.

정윤경 · 박천수 · 윤수린(2014),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애 · 강혜영(2016), “대학취업센터 상담자의 소명,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 작업동맹 간의 관계”, **실천공학교육논문지**, 8(1), 49-56.

정지애 · 이제경(2018), “지방대학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취업진로연구**, 8(2), 47-74.

조항 · 김계현 · 이자명(2009), “진로상담: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조형래 · 박용호(2017), “직업소명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 243-264.

진홍섭(2017), **직업상담분야 직무환경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직업소명의식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차정주(2014), “The Impact of a Sense of Calling on Teacher Job Satisfaction”, **교원교육**, 30(2), 149-169.

하유진 · 최예은 · 은혜영 · 손영우(2014),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 (MCM-K)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1), 191-220.

Berg, J. M. Grant, A. M. & Johnson, V.(2010), When callings are calling: Crafting work and leisure in pursuit of unanswered occupational callings, *Organization Science*, 21(5), 973-994.

Bunderson, J. S. & Thompson, J. A.(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Gutmann, M. L. & Hanson, W. E.(2003), Advanced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209-240.

Dik, B. J. & Duffy, R. D.(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2008),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In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Dobrow, S. R.(2013), Dynamics of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musicia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4), 431-452.

Dobrow, S. R. & TOSTI KHARAS, J. E. N. N. I. F. E. R.(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4), 1001-1049.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Douglass, R. P.(2014), Living a calling and work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4), 605.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C. L. & Dik, B. J.(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

Duffy, R. D. & Dik, B. J.(2013), Research on calling: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28-436.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Galles, J. A. & Lenz, J. G.(2013), Relationships among career thoughts, vocational identity, and call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3), 240-248.

Gazica, M. W. & Spector, P. E.(2015), A comparison of individuals with unanswered callings to those with no calling at al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1-10.

Giddens, A.(1984), The construc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Hagmaier, T. & Abele, A. E.(2012),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lling: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b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1), 39-51.

Hall, D. T. & Chandler, D. E.(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Kim, H. J. Praskova, A. & Lee, K. H.(2017),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Career Calling Scale for Kore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3), 434-449.

Krumboltz, J. D.(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Savickas, M. L.(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k, R. V. & Van Vianen, A. E.(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Seligman, M. E.(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82-96.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Oxford, England: Harper & Bros

Super, D. E.(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Treadgold, R.(1999), Transcendent vocation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Wrzesniewski, A. & Dutton, J. E.(2001),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179-201.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8, No. 4 - December 2018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alling of Career and Vocations

- Focusing on status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

Ji-Ae Jeong
Sewon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Hye-Young K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ungcheongnam-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calling of career and vocation research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career research. To do this, we analyzed 111 papers published from 2000 to 2018 through curr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First, it is the result of current analysis. ① By year, the current situation was insufficient until 2013, but it increased to 12(10.8%) in 2014 and 15(13.5%) in 2015. Since 2016, research has shown a high distribution of 68(61.2%). ②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adults(51.4%) and university students(39.6%). ③ The current status of the measurement tools were CVQ-K(50.3%), MCM-K(11.7%), Wrzesniewski et al(6.3%) and VCS-K(5.0%). ④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by the majority(89.2%).

Second, network analysis results. ① The frequency of appearance in the order of 'title of paper' analysis, calling sense, vocation calling, college students, career calling, life satisfaction etc. Keywords with high connection centrality were analyzed in order of calling sense, life satisfaction, career calling, university student, vocation calling. Keywords of mediation centrality were analyzed in order of calling, calling sense, career calling, life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these results, we could find out the topic of study and the subject of study which are actively studied with the importance of calling in career and vocation. ②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showed that the main subjects of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career calling, calling sense, lif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level. The main subjects of adult research subjects were vocation calling, calling sense, job satisfaction, teachers, and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use of the subject-specific calligraphy. ③ In the result of 'main word' analysis, the main topic of connection center was life satisfaction, calling sense, meaning of life, career calling. The mediation centered subjects were analyzed in order of life satisfaction, career calling, calling sense, meaning of life. Key words were derived from three research themes: G1(career adaptation and career calling for university students), G2(job adaptation and vocation calling for workers), and G3(meaning,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HRD(Career Counseling) and Graduate School of HRD,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1600, Chungjeol-ro Byeongcheon-myeon,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31253; E-mail: hy97kang@koreatech.ac.kr. Tel: +82-41-560-1412; Fax: +82-41-640-8670.

satisfaction and calling for life and work).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calling as an adaptation to the meaning and satisfaction of life and work by subject in career and vacation.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Key Words : Calling, Career Calling, Vocation Calling, Calling Sense, Career, Vocation, Network Analysis, Trend Research.